

雄飛의 80年代맞아 前進각오 새롭게

신년 賀禮式겸 榮進동문祝賀會 盛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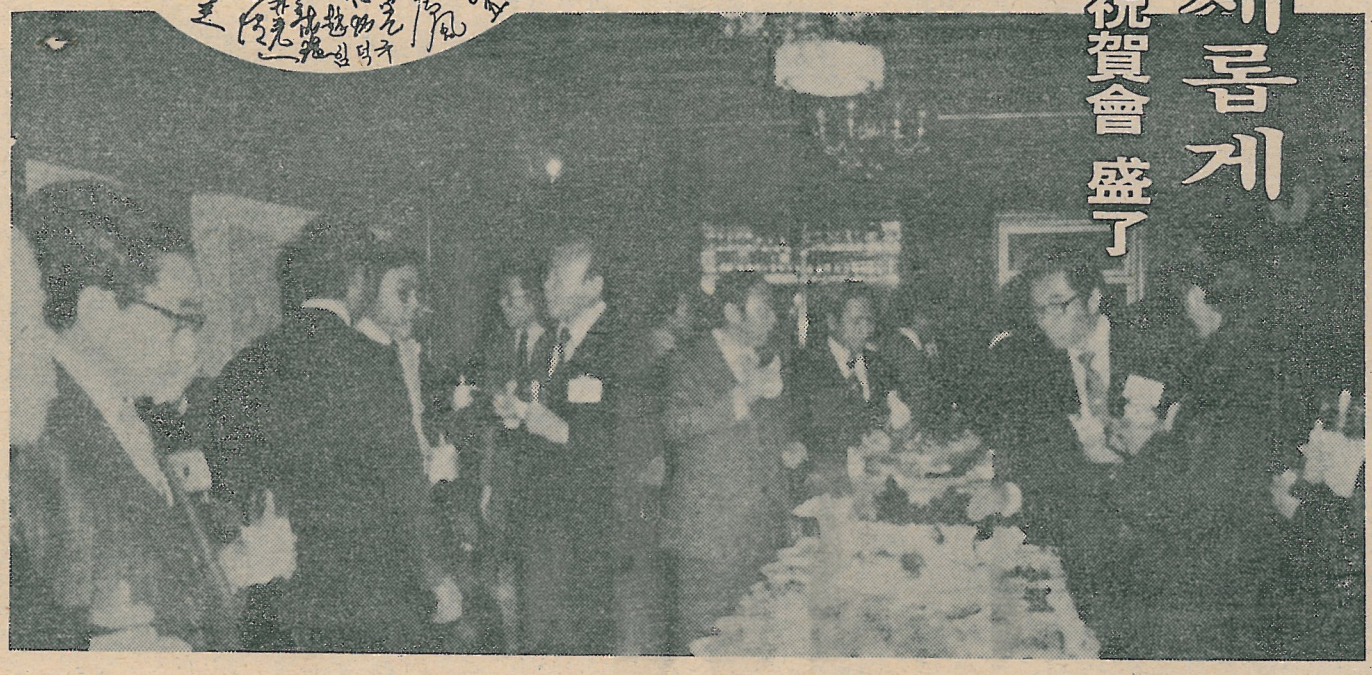
22일外交俱樂部、1백20명參席

대망의 80年代序章인 庚申새해를맞아 동창회의 지속적인발전과 전진각오를 새롭게 다짐한 新年賀禮式이 지난 1월22일(火) 崔敏九회장과 文泰植·金聖涉·黃明秀·柳周驛·朴恩會부회장을 비롯、柳根昌·鄭在哲·金濟萬·韓沃申·金璨會동문등중진동문들과 鄭在覺총장을 위시해서 黃壽永·閔丙天·金鎭遠·李丙疇등 4개대학원장、학처장급등 本會任員및 모교간부 1백20여명이 연석한가운데열렸다。

이날오후6시 外交俱樂部에서 열린 新年賀禮會에는 근래에보기드물게 중진동문들이 대거참석하였으며、특히 玄平孝신임주대학장등 榮進동문들이 동석、한층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榮進으로 이날 축하받은 同門은 玄平孝(제주대학장)·金泳鎬(병무청차장)·柳來馨(강원도경국장)·李炯基(국제신문서울지사장)·朴培根(치안본부 정보1과장)·朴魯榮(中將)·鄭淳炫(少將)·許順五(星友구락부 사무총장)동문등이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금년봄역사적등정을 앞두고있는 「마나슬루」등반대 李仁楨대장과 李榮成功的등정을 기원하는 顯부대장이 소개되어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東國」의 友愛로 기쁜 相面

▲사진上·祝賀와 기대로 東友愛가 꽃피는 신년 賀禮會場。
▲사진中·「同心同德」을 다짐한 참석동문들의 싸인
▲사진下·건배와 情談으로 東國발전의 役軍이 될것을 다짐하고있다。

싱그러운 아침氣運, 꿈이 飛翔한다

(新)(年)(頌)(詩)

보라、희게 덮인 東岳의 새아침!

章湖

사람의 꿈은 늘 날은다。
그러나 눈을 뜨고는
사람은 뛴다。
비행기도 사람의 노력이 뛰어서
날은다。
사람은 날으지 않고
대지를 밟고
뛴다。
대지만이 인간의 飛翔을 기약한다。
뛰는 것만이 내일의 飛躍을 약속한다。

보라、간밤의 降雪로 희게 덮인
東岳의 새아침、原野의 운동장!
싱그러운 아침 기운에
풋풋한 입김을 뿜어 내며
달리는東岳人의 발자욱이 눈위에
판박힌다
한발 한발에
東岳의 힘살이 실해진다
東岳의 氣象을 안으로 다져간다。

뛰는 者만이 정상을 밟는다。
쉬지않고 뛰는 데서만 東岳의
발판은 굳혀진다。
東岳의 꿈은
뛰면서 이루어진다。

〈58國文·詩人·모교師範大교수〉

東友會報

發行人 崔 敏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洪 景 模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267)8568
交換(267)8131~5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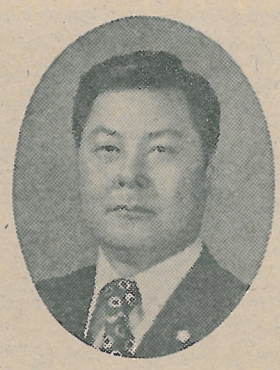
謹賀新年

東國大學校 同窓會

대소연회석·주차장 완비
부산회관
등십구이불고기·냉면·궁중전골 도시락
호수그릴 맞은편
(777-4100

칼라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P·A칼라 종합현상소
한국사진학원
중로2가 파고다 아케이트앞
TEL.(73)3018(74)3018
동문 특별봉사

新年辭



동창회장 崔 載 九

눈앞現實보다 未來내다보며 衆智모을때

庚申年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밝았읍니다。격동의 70년대를 보내는 감회보다 80년대의 여명을 밝히는 불빛이 훨씬 눈부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가슴마다에 심어져 80년대의 序章이 열린 새해 아침、우리는 설레지 않을 수 없읍니다。그것은 우리가 딛흘리며 가꾼 우리의 意志가 비로소 雄飛할 수 있는 터를 다졌다고생각되는 70년대였기에 새로맞는 80년대는 초반부터 예측할수없는 국제정세와 石油쇼크등으로 어둠이 깔렸지만주저없이 前進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할 수있는 것입니다。

東國의 70년대는 어느 때보다 中興을 위한 재기의값진 노력이 있었으며 母校를 우리동문들의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곳곳에서東國의 얼을심는 「東國人들을一東國」의 이름 아래 다시결속시키며 개인의 뜻을 합하여 전체로 확산시키며 그단합된 힘을 個人과동국、나아가 국가 발전의 차원에까지 昇華시키는데 우리의노력을 경주했던 것은 실로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 同窓會는 유구한 母校史와 그 많은 年輪이 지닌 잠재력에 못지 않은 저력과 규모를 갖추게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눈과 유혹의 毒草가 있는邪道를 피해 늦을지라도 민족사의 正道를 동요없이 걷습니다。우리 민족의 앞길에散在한 수많은 어둠은 大學이 探究하는 학문의 불빛으로세상을 밝혀야하는 바、眞理의 불빛을 뿌리며 진전을 해야하는 東國人의 사명은國家가 어려울수록、개인이 어려울수록 더욱 무겁기만 한 것입니다。

눈 앞의 現實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겨레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우리의衆智를 모아야할 때입니다。이런 의미에서 80년대의 열린 세계를 향해 늘 깨어있는 意識으로 부단한 정진을 계속할 5만 동국인에게 동창회로선 결코 눈 앞의 작은 문제보다는 먼 안목으로 동국인의 個性이 합하여 독특하고도커다란 特性으로 集約될 수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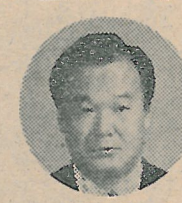
첫째로、현재 全國에 흩어져있는 2백여 支部를 근간으로 지부 구성을 深化시키며 그지부 조직활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同門들의 유대강화 및 情報交換을 위한 同窓會館 건립을 年次的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둘째로、고조된 모교의 학분위기 풍토와 활기를 띠고 있는 스포츠 활동을 위해 기왕에 추진 중인 「開校70週年紀念 장학기금」과 「야구부후원기금모금」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擴大합으로써 東國발전의 보조를 맞추는데 진력하겠읍니다。

셋째로、모든 東國人들의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알찬 行事를 치뤄 살아있는 同窓會로서의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東國」의 像을 社會전반에 침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同窓會를 이끌어 가겠읍니다。

지금 母校는 慶州大 設立과 人員증원등의 量的 팽창외에도 敎授陣 공개채용등 質·量面에서 발전을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어쩌면 80년도는 우리 同窓會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치뤄야 하는 실로 바쁜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그러나 이렇듯 숙적된 東國의 힘이 母校와同門들의 앞날에 무한한 可能性으로 솟구름게 뻗칠 것을 확신하기에 나룰대로 벅찬가슴을 가눌 길이 없는것 입니다。부디 겨레의 빛이되고 길이 될 수 있는 東國人像정립에 우리 모두 슬기를 모으고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린 80년대의 세계로 뛰어들면서 다시한번 故鄕으로서의 東岳을 생각해 봅시다。

□行政大學院□



◇安鍾烈 회장

새해는 격동의 70年代를 뒤로하고、80年代의 黎明을 맞이하는벅찬 出發時點으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특히 우리 행정대학원동창회로 봐서도그 어느때보다 現實을 통찰하는 감회와 각오가 새로와진다。

그동안 會長으로서 회원들의 기대와 의욕에 비해 부족한 求心點을 만들고 있지 못한점을 늘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과、모교 행정대학원과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체육대회、졸업생환영회、신입생환영회、산업시찰및「행정대학원의밤」등을 계속사업으로 지속시키고、또한 회원들의 신상을 최대한 파악、수협체작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회원들이 숫자적으로나、사회활동面에서 여타 특수대학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않고 있는데、앞으로 협조의식의 提高에도 노력하겠다。

新一면모로 導誘與參 적극 자발적

本會는 70年代에 무려 2백여 各級單位 東友會를 조직、各地에 산재한 5만여 同門에게 각기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本會 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그간 會員들의 투철한 단결과 同門愛에 힘입어 방대한 組織은 그 연륜에 비해 그 결속력과 활약은 실로 비약적 발전으로서 各活動相을 통해 볼수 있었다。80年代에는 이 바탕을 더 생산적이며 구체적 方向 深化시켜 작게는 自體支部를、크게는 母校와 東國人 전체의이익을 提高시키기에 각급 單位조직은 새해의 새프로젝트 마련에 부심중이다。여기에 그들의 의욕에찬 設計를 들어본다。

□經營大學院□



◇金完基 회장

금년은 새해와 더불어 새로운年代를 맞는다는데 각별의 의의가 큰것 같다。지난 70年代는 어려운 가운데成長을 持續해오면서 모두가 대망의 80年代의 迎入을 갈구해왔다。

80年代의 분택에 들어서서 各者 보는생각은 다소 조금씩 달리 느낄수도 있으나、주변의 諸여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우리 모임도 이러한 평범속에서 非凡을 찾는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즉 좀더 참여、좀더 협력、좀더 이해、그리고 실천을 통한 발전과 창조가、병행하도록 우리 동국經營人의 意志를 십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經營대책을 모색하는 조찬세미나로 회원간에 경영정보를 교환하고、체육대회및 經營報발간등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솔선하겠다。

또한 우수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금년부터 장학금지급방안을 추진하겠다。

모쪼록 새해에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의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풍토가되었으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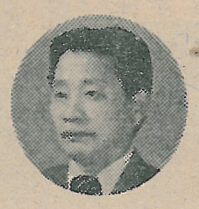
좀더 參與, 協力, 理解를 모토삼아

기대부푼新年設計

각급東友會長이밝히는事業白書

우리답게 챙기는 努力을 倍加할터

母校在職會



◇李丙疇 회장

在職同門會를 活性化하라는 제의에 맞추어 보다 실속에 찬 일을 꾸미고는 있다。그러나 前任員의 훈수가 現任員의 따끔한 의론도 있고、특히 한솥의 밥을나누는 他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大同에 거슬리지 않는우리의 東國大學校를위한 在職同門會를 다짐한다。

慶吊爲主의 同門會가 스스럽진 하다。용돈에 불과한 장학금은 손이 뜨겁다。그러나 발을 뻗을 자리가 못된을 모르진 않는다。내납없이 띠조르는 관이라 새부대는 난감하고헌 부대나마 깨끗이 빨아 놓기는했다。

남을 위한은 워낙 부처님의거룩이다。따라서 나부터 몸을도사리겠다。남에 빌붙어 어정거리는 우리보다우리끼리 우리의 힘을 짜서 우리답게 챙기는 在職同門會를 위해 이왕 잡은 고삐이니 向方이나 잃지 않는길 잡이 구실을 하련다。

강한 햇볕은 진한 그림자를 자아내고 높게 오르면 세차게 떨어짐이 天理다。보다 탐스러워야 할 우리 東岳이요、보다 손끕혀야 할 우리 在職同門會였으면하는 말부림이 앞서탈이다。年輪이나 얕고 허우대나 부실타면 눈이나 감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도토리를 감수하다니 역시 송충이는 솔잎이다。바라건대 거칠은世波에 복을 누려 나누시고 아물러도 타운 도움을 삼가빈다。차마 내미는 손을 위해 따끈한 차부터 끓이렵니다。

東女會



◇洪淑子 회장

숙원의 女學生會館 건립 적극 推進

本會의 第1 目標는 女學生會館 建立이다。이 계획의 實現을 위해 79년 11月에는 基金을 구성、매월定期모임을 통해 기금을 擴大해가고있다。朴桂山 東女會 後援會長의 熱誠으로 한층 구체화된 女學生會館 建立事業計劃은 80년대에 그결실을 맺음으로서 東國 女學生會의 복지및활성화를 기할 예정이다。그밖에도 東女會 會員名簿를 作成 配布、보다조직적이고 효율적 會운영을 위해 단계적 준비작업을 금년을 시발점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이와같은 廣大한사업의 성공적 完遂를 위해서는 會員各者의 참여 정신 고취가 급선무인 만큼 우선 東女會 會員들의 적극적 참여정신 고취를 當面課題로삼고있다。

東國 山岳會



◇金容浩 회장

成功的「마나슬루」등반지원 최선

우리 東國山岳會의 새해소망은 히말라야의 巨峰 마나슬루에 태극기와 모교 校旗를 나란히 꽂는 일이다。

지난 77년부터 등반계획을 구상、새해를 맞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장도에 오르게되어 더욱 감격스럽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登頂을 이룩해야겠다는 회원들의 총력전이 加速되고 있는 터이다。

이번 마나슬루 등반은 우리東國山岳會의 榮光을 떠나는 우리 겨레와 국가적 차원에서성원하고 격려해야할 것이다。

동문관계 改善, 모범支部 되고자

慶北支部



◇金正燾 회장

우리 모두가 待望하던 80年代의아침이 밝았다。그러나 이 아침이 춥고 어두운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石油波動이니 하는 外形的인 것만은 아닌것같다。

새로운 80年代는 物質위주의 價値觀이 팽배하여 그것은 人間的인 정신가치의 퇴색이 더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문활동등은 이러한 人間관계의 개선、다시말해 學緣을 같이한 先後輩가 함께 友悌를 나누고 모교에기여할수있는 구심점을 부단히 찾아나가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모교가 慶州로 校勢를 확장하여 時空的 거리감이 축소되고 있는만큼、우리지부도 어지러운 잠에서 깨어나 和合과 긍지로 「東國」의모범이 되고자한다。

濟州支部



◇金榮柱 회장

회원 상호간 理解增進 적극 노력

그간 본인자신이 外地에서 公職생활을 하다보니 운영상의 공백이 있었으나 濟州東友會를 중심으로한 東國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음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二元化된 濟州支部와 濟州東友會가 一元化되어 會員層이 擴大되고 공통의 좌표를 설정해 나가야될 줄로 안다。

우선 회원들의 衆智를 모으고、순수한 모교애에 호소하여 결조사업화、정기적 모일등으로 內實을 기한다음에 孤立되지 않은 단위멤버가 되도록 유기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하겠다。濟州道內에서는 다른大學동창회의 귀감이 되고있지만、앞으로 精進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韓國住宅銀行



◇金在基 회장

基金 4백만원 擴充등 內實 기해

본회는 회원수 34명으로 지난 수년간 회원들의 진지한 참여와 자부심에 힘입어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나왔다。

한마음 한뜻아래 「東國」을 내건 제주지부가 그동안 제주실을 못해왔으나 80年代에는 사명감과 協力을 바탕으로 會 活性化를 위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위한 정기적 모임을통해 조직을 견고히 하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모두의 노력으로 지난年末로 기금2백만원을 달성한바있다。

금년은 본회의 기본복표를 「내적충실의 마무리해」로 정하고 4백만원 목표의 기금확충및 회원상호간의 친각종행사추진에 힘쓰겠다。또한 81년부터는 조직을 바탕으로한 대외사업을 구상중에 있는데、체육대회(테니스)、가족동반야유회 각종경조사 참여와 본부동창회및 모교발전에의 유대강화등도 꾀해나가겠다。떳떳한 東國人으로 가장모범적인 단위조직임을 늘 자랑토록할 것이다。

51년 政經學部

◇李 昌 根회장

獎學事業 전개로 先輩 면모 살려

現在 每月 모임 制度를 격월제로 바꿈으로써 모임의 效率的 運營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事業計劃으로서 첫째、獎學基金을 마련、年次的인 擴大를 통하여 우수한 政經學徒에게 愛惠케 함으로써本會의 特性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는 母校 體育部의 活動을 後援할 계획이며 특히 海外遠征選手및 임을 支援함으로써 東大體育발전에 助力할 계획이다。51政經東友會의 活性化와 母校발전을 同時에 꾀할수있는 會運營과함께 수시로 옛恩師를 초빙하여 對話를 갖고 師弟間의 情을 더욱더 돈독히할수 있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每年1千萬원 支給

東國70周 奬學金

基金 4천만원 豫置

첫理事會결정

會則통과 汎東國人 참여운동結實

모교 開校70주년을 기념하여 汎東國人운동으로 전개되었던 奬學사업이 마침내 「東國70週紀念장학회」로 정식 出帆, 새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同장학회 첫이사회가 지난29일오후2시 모교 교수소회의실에서 열려 「신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원칙아래 회직통과와 기금운영, 장학금수여원최등을 확정했다.

이날同奬學會鄭在覺이사장(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뜨거운 誠金이 후배들의 向學熱을 북돋우고 校威를 빛내는데 보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同奬學會당연직간사장인尹成澤모교학생과장사회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우선 그간 積立된 4천3백만원중 奬學基金으로 4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3백만원을 이번학기에 지급하며 금년중 1천만원정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장학생선발의 경우, 모교학칙및 장학규정과 이사회결의로 결정키로했다.

한편 이 장학사업에 참여한 동문수는 총1천5백여명으로 집계되었다.

◇同장학회 任員명단

▲고문=崔載九동창회장, 朴淇宗동국학원이사장

▲이사장=鄭在覺총장

▲부이사장=朴愚會(본회측), 학생처장 崔世和(모교측)

▲이사=文泰植 金聖涉 柳周鏖 柳根昌 鄭在哲 黃慶石 尹天泳(이상 본회측) 교무처장鄭允武, 기획실장 裵鍾根, 재직동문회장李丙疇(이상 모교측)

▲감사=黃石淵(본회측) 총무처장 金翰周(모교측)

▲간사장=학생과장尹成澤

▲간사=학생주임 申日植



◇朴 會長

釜山지부 定總마쳐

구랍28일 朴東昊회장 再選

釜山支部 정기총회가 구랍28일 오후5시 市內 西面 고려예식장2층에서 열려 회원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定總은 감사보고, 79년도 업무보고에이어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黃在萬(54經)동문사회로 任員改選을 가졌으며 會發展策 토의도 있었다.

▲고문=李鍾源(42해전·장에 朴東昊(57林學·효성수산사장) 동문을 재선출했다.

釜山南中교장)金容彩(53·法學·고려호텔·제일고려예식장대표)李康郁(53經濟·세변호사)黃在萬(54經濟·세무사회부산市지부장)辛翔教(52經濟·三信시멘트)상사代表)

▲회장=朴東昊

▲부회장=邊永傑(49전문·경남종합농장代表)李鍾成(56經濟·共和藥품·경남·연락실장)、南基碩(61法學·선화女商교장)、高喜錫(60정치·경제·동문사회로 任員改選을 가졌으며 會發展策 토의도 있었다.

▲고문=李鍾源(42해전·

東國山岳會단일팀 "東國人氣慨 살리길"

'80한국마나슬루隊결단

東國山岳會(회장=金容浩)의 「80한국마나슬루등반대」결단식이 지난22일 오후2시 한국산악연맹회장과 李仁楨 모교 교수회의실에서 鄭在覺총장、金永悼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단식은 同會 朴秀根이사의 사회로 태극기·東國大學校校旗·東國山岳會旗수여에 이어 姜聲允회원의 同會연혁보고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金회장은 인사에서 『20년전통을 자랑하는 東國山岳會가 불굴의 투지로 마나슬루頂上에 태극기를 휘날림으로써 先人들의 넋을 달래고 약진한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과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在覺 총장도 축사에서 『인류정신문화의 본질이 마나슬루주변에서 꽃피어 온 만큼 경건하고, 도전하고, 「민족의 대한」출신다운 선의 同會연혁보고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金회장은 인사에서 『20년전통을 자랑하는 東國山岳會가 불굴의 투지로 마나슬루頂上에 태극기를 휘날림으로써 先人들의 넋을 달래고 약진한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과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在覺 총장도 축사에서 『인류정신문화의 본질이 마나슬루주변에서 꽃피어 온 만큼 경건하고, 도전하고, 「민족의 대한」출신다운 선



◇鄭在覺총장이 李仁楨등반대장에게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수여하고있다.

등반대장을 비롯한 등반대원및 山岳會員, 모교 교직원 재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결단식은 同會 朴秀根이사의 사회로 태극기·東國大學校校旗·東國山岳會旗수여에 이어 姜聲允회원의 同會연혁보고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金회장은 인사에서 『20년전통을 자랑하는 東國山岳會가 불굴의 투지로 마나슬루頂上에 태극기를 휘날림으로써 先人들의 넋을 달래고 약진한국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과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在覺 총장도 축사에서 『인류정신문화의 본질이 마나슬루주변에서 꽃피어 온 만큼 경건하고, 도전하고, 「민족의 대한」출신다운 선

湖星동우회 정비

羅洞榮회장등 留任



◇羅 회장

湖南출신들의 친목모임인 湖星東友會 정기총회가 구랍15일 市內 화신백화점옆 D亭에서 열려 羅洞榮(63佛敎) 회장등、회장단을 전원 유임시켰다.

회원상호간의 향토및 모교발전 기여를목적으로 하고 있는 同會는 앞으로 모임의 陽性化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擴大와 基金을 조성해 나갈것등을 결의했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한이날 모임은 포근한 고향을 느끼며 시종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회장=羅洞榮

▲부회장=金喜午(64政·도서출판 春秋각代表)、金三澤(65經·영진종합사무기代表)、朴祥鎬(68法·모교電算院)

▲간사장=尹山鶴(65法·한국과학원)

▲간사=李元睦(68行·대한불교신문사)

崔載九회장등 참석 福地中高 졸업식에

崔載九 회장은 지난14일 尹天泳사무국장과함께 巖政府소재 福地中高(교장=安泰鬪동문)졸업식에 참석、축하격려를 보내고 우수졸업생을 표창했다.

金東正(5만원)林德圭(3만원)동문과 朝興은행東友會(5만원)가 협찬했다.

또한 鄭在覺총장이 金一封을、모교 학도호국단에서 2백만원을 지원、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會長團 年賀狀발송

본회에서는 회원간의 親睦과 승과 事業日益번영을 기원하는 會長團명의의 年賀狀을 제작、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새해를 맞아 東國人의 건

新東亞화재 創總

회장에 睦鎭洙동문

新東亞火災海上保險(주) 재직동문 10여명은 지난10일 참릭총회를 갖고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은 물론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東國人의 사명을 다할것을 결의했다.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초대회장 睦鎭洙(63경영·영업직할부次長)、간사에 嚴光錫(74英文·영업1부)동

嶺北支會

城·麟蹄지회(회장=朴在權)송년회겸 趙誠雲(속초시장)、鄭俊時(양양군수)동문 영전축하의 밤이 구랍6일 속초시내 삼오정에서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盛況을이룬 이날 모임은 金은다음, 會基金조성, 후배 장학지원및 조직擴大방안등을 거론하였다. 이어 1月中「재학생 위안의 밤」을 개최、선후배간의 情誼를 두텁게할것도 결의하였다.

高陽郡지회

지회(회장=李 範錫)신년하례회가 지난12일 一品所在 경일식당에서 20여명의 회원참석리에 열려 회원간에 상호친목을도모하는 한편 새해부터 組織의 活性化를 기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61년경제과 定總

회장에 金炳琳동문

61년經濟學科(회장 閔琰植) 정기총회가 지난18일오후9시 시내롯데호텔5층개나리홀에서 37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열려 회직중회장단임기「2년」을「1년」으로 만장일치 결의한뒤、임원개선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金炳琳동문을 선출했다.

이자리에서는 신년도주요 사업계획논의에이어、年會費의 단체납부등을 결의한뒤 오랫만의 情談으로 우의를 돈독히했다.

▲회장=金炳琳▲부회장=朴海春(조달청內資2課長)朴在意(모교학생지도과장)▲총무이사=金旭(동진산업총무부장)

경북少壯팀

慶北少壯팀(70~78년卒業) 동문들은구랍22일 20명이 夫婦동반으로 동화寺 그린호텔(이희구同門경영)에서 송년회겸 年末결산보고회를 가졌다.

大韓石炭公社

대한石炭公社등우회 송년모임이 구랍 26일 李輔炳(63商學·관리과장) 회장宅에서열렸다.

惠門會

惠門會(회장 申國柱) 송년 모임이 구랍16일(日) 오후6시 市內 가든호텔2층에서 부부동반으로 열렸다.

이날 회원들은 同會기금擴大문제와 모교발전상에 관해 환담을 나누며 새해에 力하기로 결의했다.

東綠會

東綠會(회장 鄭在哲) 송년 모임이 구랍17일 오후6시 시내청진동「南元」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참릭이래 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가운데 화기애애하게 베풀어졌다.

考試班에 誠金전달

秋東憲·吳鎭模동문

法友會회원인 秋東憲(65大法·한국自動車保險상무이사)、吳鎭模(61法·國土開發연구원전문위원)兩동문이 구랍 17일 年中無休로 고시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考試班(지도교수=鄭用吉)을 찾아 金一封씩을 전달하여 후배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두同門은 이날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힘닿는데까지 배려하겠다. 學問的정진으로 각자 청운의꿈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法友會

法友會(회장 鄭昌勳)는 구랍29일 오후6시30분 市內 앰버서더호텔 홍보각에서 신입회원 10명을 비롯、19명이 참석한 가운데 送年총회를 열고 정기적인 모임개최、冠婚喪祭의 상부상조、조직強化등 質的向上문제등을 논의했다. 이어 鄭會長의 歐洲여행담을 듣는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의를 나누며 더욱 精進할것을 결의했다.

한편 同會는 새해들어 지난 26일(土) 오후5시 市內 충무로「동원」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어、모교 考試班지원등을 위한 기금조성을 正式결의했으며、이날 李衍澤·金泳鎬·申相斗동문등 6명의 會員 신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수가 26명으로 늘어났다.

東進會

東進會(회장 申琫浩)는 구랍28일 市內 一流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送年모임을 갖고 회원간의 우의증진과 새해사업계획등을 논의. 同會는 이날 현재의 기금 4백50만원을 80年末까지 1천만원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美「디트로이트」東友會결성

동국산악회에 誠金 보내

美中西部東友會 디트로이트 分會가 지난年末 결성을보아 구랍31日「東國人의 밤」을 열고 가슴벅찬 東友愛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미 쉬간 大學에 교환교수로가 있는 金鎭轍 李順龍교수、노스캐로라이나大學에 가(계명대)동문內外등이 참석、밤을 세워가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층 뜻있고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와같은 소식은 모교 경리과장으로 在職중 渡美한 林燉선생이 알려온 것으로 편지에서는 東國山岳會의 마나슬루 등반소식에 도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農開公도 定總

회장에 李周炯동문

農漁村開發公社 (회장=申東禾) 79년 정기총회가 구랍21일 市內 영등포 H음식점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李周炯(65經濟·시장조사과장)、간사에 黃晟夏(78農經·시장조사 1과)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閔容植동문이 協贊

金映熙양 冬季音전

閔容植(49전문·一宇海運사장)동문은 스피드스케이트국가대표선수 金映熙(가교4)양이 自費로 冬季올림픽에 출전케된다는 소식을 듣고 50만원을 쾌척、후배의 사기를진작시켰다.

오는 2월13~24일까지美레이크플레시드에서 열리는 제13회 冬季올림픽에는 金양을 비롯 男女1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金양은 국내경기에서 좋은 기록을보여오고있다.

74년經濟科 同期會

金廣鎭동문 축하도

마나슬루 등반대 金廣鎭대원의 장도를 축하하기위한 74년經濟科 同期모임이 지난23일 광화문J음식점에서 열렸다.

李炳鎭(현대전설)동문등이 주선한 이날 모임에서 同期生들은 成功的 登頂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해 준 것을 기원하며、또한 모교및 同期近況등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梁柱東박사 四周忌

追慕祭

語文學會서

東岳語文學會(회장 李丙燾)주관、梁柱東교수 4周忌추모제가 오는 2月4日 오후1시 龍仁公園墓苑에있는 故人의 묘소에서 거행된다.

이날 參禮는 金起東 金英培동문의 진행으로 洪起三동문의 吊辭、黃命·朴柱官동문의 吊詩、李鍾殷교수의 會歷소개、梁炫宗(58國文·상계)동문(고교 12인치) 1대를 본회 사무국에 기증했다.

이날 회원들은 행운상품으로 TV가 崔載九회장이出品한 것을 보고、同會의 發展을 위한 2대나 나온것이다. 사무국備品으로 내놓게 된것인데 朴愚會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法友會서 TV 본회사무국에 기증

汎法學科출신 모임인 法友會(회장=鄭昌勳)에서는 지난年末 「東國人의밤」행사때 회원들의 행운상품으로 내놓은 TV를 본회사무국에 기증했다.

이날 회원들은 행운상품으로 TV가 崔載九회장이出品한 것을 보고、同會의 發展을 위한 2대나 나온것이다. 사무국備品으로 내놓게 된것인데 朴愚會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金映熙양 冬季音전

閔容植동문이 協贊

閔容植(49전문·一宇海運사장)동문은 스피드스케이트국가대표선수 金映熙(가교4)양이 自費로 冬季올림픽에 출전케된다는 소식을 듣고 50만원을 쾌척、후배의 사기를진작시켰다.

오는 2월13~24일까지美레이크플레시드에서 열리는 제13회 冬季올림픽에는 金양을 비롯 男女1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金양은 국내경기에서 좋은 기록을보여오고있다.

74년經濟科 同期會

金廣鎭동문 축하도

마나슬루 등반대 金廣鎭대원의 장도를 축하하기위한 74년經濟科 同期모임이 지난23일 광화문J음식점에서 열렸다.

李炳鎭(현대전설)동문등이 주선한 이날 모임에서 同期生들은 成功的 登頂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해 준 것을 기원하며、또한 모교및 同期近況등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梁柱東박사 四周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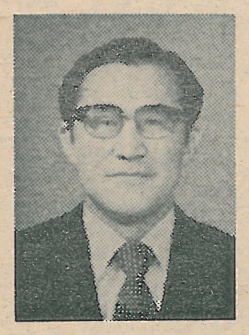
追慕祭

語文學會서

東岳語文學會(회장 李丙燾)주관、梁柱東교수 4周忌추모제가 오는 2月4日 오후1시 龍仁公園墓苑에있는 故人의 묘소에서 거행된다.

이날 參禮는 金起東 金英培동문의 진행으로 洪起三동문의 吊辭、黃命·朴柱官동문의 吊詩、李鍾殷교수의 會歷소개、梁炫宗(58國文·상계)동문(고교 12인치) 1대를 본

국립濟州大學長 취임한 玄平孝동문



『民族을 中心으로한 濟州固有文化 啓發』에 敎育重點을 두고싶다는 新任 濟州大學長 玄平孝(50·國文) 同門의 設計。

『못밖의 重責을 맡아 여깨에 무거운 짐을 느낀다』고 學長就任所感을 결인다。

제주의 地域的、文化的 特性을 살리면서 現 單科大學을 綜合大學으로 승격시키는 第1目標 문제가 學校運營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綜合大學으로서의 濟州大學 육성을 위해 農畜과 기성문。

◇玄동문은 濟州大學 발전을 위한 금의 濟州大學 創設에 고향에 野심을 분산하는 것이 모성애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겠다』

濟州道 方言硏究資料編(62년)을 비롯한 數편의 著書를 비롯, 제주도방언연구이론편, 제주도 방언사전등이 近刊예정으로있어 연구활동에 남다른 精熱을 쏟고있다。

玄동문은 第1回 濟州道文化賞을 수상한바 있고, 74년 母校에서 文學博士學位를 취득한바있다。

현재 濟州 東友會長을 맡아 同窓會 發展에도 크게활약하고 있는 玄동문은 金烈(58) 女史와의 사이에 軍法務官으로있는 장남을 비롯, 슬하에 2남3녀를두고있다。

濟州고유文化 계발에 앞장다짐

綜合大學 승격위한 준비작업도

강조。濟州大學의 規模는 四개學部 25개學科에 學生數 4천여명에 敎職員 2백여명。

玄동문은 濟州 涯月面출신인데다 52년 濟州大學의 創設時부터 줄곧 同校에 재직, 한때 國語·國文學科 고참으로 學長·敎育學部長·法文學部長·敎育大學院長職을 맡아왔다。

新年揮毫「不爭善勝」



韓 養 根동문

新年휘호를 보내온韓養根(53法學) 동문은 現職大林女中교장으로 대한書藝교육회장을맡고있다。



兵務廳次長으로 昇進해운 우수공무원紅條勤政훈장도

金 泳 鎬 <兵務廳次長>

同門動靜

<略·敬稱·無順>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 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總理室제1行政調整官승진 총리실15년의 行政베테랑



李 衍 澤 <總理室제1行政調整官>

李衍澤(61·法學) 동문이 國務總理室 제1行政調整官(1급)으로 승진되었다。

61年 재건국민운동본부 창설멤버로 활약한바 있는 李동문은 64년부터 총리실에 근무, 15년여를 봉직해오면서 함만행정·民願·서울市政등을 주로 담당해 왔으며, 지난 77년엔 우수공무원 紅條勤政勳章을 받은바도 있다。

경기 부천에서 藥局을 하고있는 이영순여사와의 사이에 2男을 두었다。

우수公務員 紅條勤政勳章포상

文 明 麟 <54政治·해운합만청次長> 동문이



星友俱樂部사무총장에 취임 「耳順고개를…」自叙傳출간

許 五 順 <星友俱樂部 상임理事兼 事務總長>

구랍 30일 중앙청회의실에서 있은 우수公務員 표창식에서 紅條勤政훈장을 수여받았다。



固城鐵城中高교장에 취임 25년여를 敎職奉仕로일관

權 椿 燮 <장교교中高성철城固>

權椿燮(54英文) 동문이 지난해 7月경

統一院통일硏修所長 승진 "國土統一업무종사에보람"



李 榮 一 <統一硏修所長>

李榮一(73·行碩) 동문이 國土統一院 통일연수소장(1급)으로 승진되었다。

東洋通信및 CBS外信해설위원을 거쳐 지난 71년 統一院 상임연구위원으로 발탁된 李동문은 同정치외교정책담당관、同調査연구실政治外交담당관、同교육홍보실장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協商의 戰略」등의 譯書가 있다。

총무이사、한국電氣安全公社이사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五山中高동창회장、南岡장학회이사장、平北道民會운영위원과 本會理事로도활약중인 許동문은 최근 自叙傳的 人生錄인 「耳順의고개를 넘으면서」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했다。

榮進·轉補

姜泰遠(73物理·母校 재료과학연구소硏究員) 동문이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취급 감독자면허를 취득했다。

姜동문은 작년봄에 이미 원자력연구소에서 연수교육을 6주간 받았고, 또한 11月20日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바있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난 12月13日 면허를 취득한것이다。

▲河在龍(62 經濟) ‖포항同志商高감사에서 浦項實業專門大學 경영학과교수로。

▲李熹一(63 政治) ‖信用保證基金 城東支店 차장으로。

▲李昶雨(65 農經) ‖충남 서산군이북면 이원國校로。

▲安鍾烈(63 法學) ‖仁川電信電話局長으로。

▲陳宗龜(62 經濟) ‖朝興銀行덕수지점 차장으로。

▲李正煥(62 經濟) ‖朝興銀行남대문지점차장으로。

▲李君明(63 法學) ‖國一證券공평지점장에서 본사調査部長으로。

▲李長熙(65 農學) ‖국립농산물검사소 仁川支店에서 同 농산물시험소(영등포所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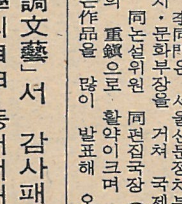
▲徐時鏞(68 警行) ‖有元建設 해외인력부代理에서 同社사우디A현장代理로 (2월2일출국)

結婚

▲鄭政樹(70經營·東亞日報편집부記者) 洪月杓(69法學) ‖1月13日 正午 市內신혼예식장에서 崔敏九동창회장 주례로 화촉。

▲許東華(57法·방주실업社長) ‖1月17日오전11시 市內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長

國際新聞 서울支社長영전 편집국장지낸 言論界중진



李 炳 基 <國際新聞이사>

李炳基(56佛敎) 동문이 國際新聞서울지사장으로 榮轉되었다。

연합신문記者를 스타트로 언론계에 몸담아온 李동문은 서울신문정치부장、대한일보정치·문화부장을 거쳐 국제신문편집부국장 同논설위원 同논설위원(2回)등 언론계의 重鎭으로 활약이크며 詩人으로도 좋은作品을 많이 발표해 오고있다。

「時調文藝」서 감사패받아 「文學의自由」등저서내놓아



鄭 奉 來 <文學評論家>

鄭奉來(46惠專) 동문이 지난해12월 「時調文藝」로부터 『올바른 비평정신으로 文學진로의 方向을 일깨워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評論당선으로 文壇에 데뷔했던 鄭동문은 그간 文學평론가로서 文藝비평에 정열을 쏟아왔는데, 평론집 「文學의 自由」、評傳 「人間 徐廣보女史」(김치할머니)등이 있다。

TBC 탤런트실장에 선임 연기大賞서人氣·友情賞차지



李 成 雄 <TBC—TV탤런트실장>

李成雄(64·演映) 동문이 TBC·TV 탤런트실장으로 선출되었다。

79년도 TBC·TV演技大賞에서 人氣賞과、동료탤런트들이 뽑는 友情賞을 받기도 한 李동문은 64년 라디오서울 1期(壁優)로 연예계에 進出했다。

지난年末 「東國人의밤」 행사때 찬조출연및 長期자랑 심사를 맡기도 했던 李동문은 현재 TBC·TV 人氣연속극 「야곱레야」에서 마영달役을 맡아 구수한話術로 시청자들의 人氣를 모으고 있다。

住公잠실관리본부장 취임

吳 應 煥 동문

吳應煥(54英文) 동문이 대한住宅公社 반포관리본부장에서 잠실관리본부장으로 전임되었다。

第一銀行심사2부장轉任

宋 寶 烈 동문

宋寶烈(57經濟) 동문이 第一銀行저축부

一九八〇學年度(後期) 東國大學校 新入生(男女)募集요강

一、모집학과·정원·고사과목

大學	學科	定員	試驗科目
佛敎大學	佛敎學科	二〇〇	國語(Ⅰ)
	印度哲學科	二〇〇	英語
	佛伽學科	二〇〇	數學(Ⅰ)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三〇〇	國語(Ⅰ)
	英語英文學科	二〇〇	英語
	史學科	二〇〇	學語(Ⅰ)
	哲學科	二〇〇	數學(Ⅰ)
	統計學科	三〇〇	國語(Ⅰ)
	物理學科	三〇〇	英語
	化學科	三〇〇	數學(Ⅱ)
	數學科	三〇〇	
法政大學	法政學科	一四五	國語(Ⅰ)·英語·數學(Ⅰ) 〈대학별모집〉
	行政學科		
	警察行政學科		
	都市行政學科		
經商大學	貿易學科	一四〇	國語(Ⅰ)·英語·數學(Ⅰ) 〈대학별모집〉
	經濟學科		
	會計學科		
	營業學科		
	電子計算學科	四〇	國語(Ⅰ)·英語·數學(Ⅰ)
農林大學	農學科	二五	國語(Ⅰ)·英語·數學(Ⅰ)
	農業經濟學科	二〇	
	生物學科	二〇	
工科大學	電子工學科	四〇	國語(Ⅰ)·英語·數學(Ⅱ)
	電氣工學科	三〇	
	土木工學科	四〇	
	建築工學科	四〇	
	化學工學科	三〇	
	食品工學科	三五	
	經營學科	二五	國語(Ⅰ)·英語·數學(Ⅰ)
師範大學	教育學科	三〇	國語(Ⅰ)·英語·數學(Ⅱ)
	國語教育科	三〇	
	社會教育科(지리전공)	三〇	
	國史教育科	三〇	
	家政教育科	三〇	
	數學教育科	二五	國語(Ⅰ)·英語·數學(Ⅰ)
藝體能系	美術學科	三〇	實技、예시성적
	演劇映畵學科	三〇	
	體育敎育科	二〇	國語(Ⅰ)
		三〇	英語 實技

二、지원절차·전형기간

	전형기간	고사
㉮	①필답·면접·실기 ②신체검사 ③합격자발표	1980년2월5일(火) 1980년2월6일(水) 1980년2월16일(土)
㉯	①교부 ②접수	1980년1월1일(月)~2월2일(土) 1980년1월28일(月)~2월2일(土)
㉰	교부및 접수처	본교 교무과
㉱	수험생예비소집	1980년2월4일(月) 오후2시 본교 운동장

本大學校 慶州大學 (前期)

一、모집학과·정원

學科	定員	試驗科目
佛敎美術學科		

金泳鎬（61法學）동문이 1월19일자로 兵務廳次長（1급）에 승진했다。
金동문은 70년 충남지방병무청부청장、73년 전남지방병무청장、75年 兵務廳장등 同廳관내에서만 20여년간을 봉직해와 업무에 밝으며、병무행정을 통한자주국방에 기여해오고있다。
한편 金동문은 구랍30일 정부로부터우


金 泳
<兵務廳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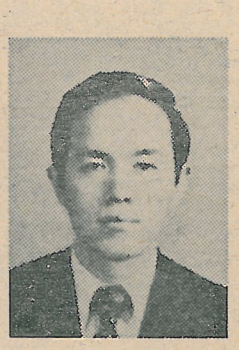
許順五（69 行院）동문이 예비역將星들의 모임인 星友俱樂部상임이사직에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육사특별7기생으로 31사단장、陸本관리참모차장등 軍요직을 두루역임한 許동문은 육군준장으로 예편、한국전력 영업·


許 順
<星友俱樂部 상임
事務總長>

權椿燮（54英文）동문이 지난해 7月경 남固城에있는 鐵城中學校 교감에서 鐵城中高교장으로 승진、취임하여 후진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모교 초대총장을 역임한 故 權相老박사의 令息인 權동문은 서울을 비롯、大邱·釜山등지와 특히 固城에서 10여년등 25년여를 교직에 봉사해오고 있다。
〈제보=忠武·統營지회장 姜祥民〉


權
<固城철

강원도 警察局長 부임한 柳 來 馨동문


◇『江原道는 치안상 취약지구이나 신뢰와 봉사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나 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히는 柳동문。

『강원道警은 治安上 가장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있으므로 남다른 봉사와 사명감으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히는 江原道警局長 柳來馨（60英文·경부관）동문。
『아직 관내를 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지만 1백45㎞에달하는 休戰線과 철원·양구·화천등의 수복지역、2백10㎞의 해안선을 접하고있으며、총면적의 83%가 험준한 산악（이중1천m이상 高地만도 3백10개）으로 이어져 對共上은 물론、治安유지상 애로가 클것으로 압니다』라고말을 잇는 柳同門은『그러나民警이 合心하면 살기좋은 고장이 될것』이라고 자신에찬 낙관론을 편다。
『우선 地理的여건이 不利한 만큼 철저한 安保치안에 치중해야겠지요。다음에는 급증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自然보호와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질서를 확립해주는 것이 과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柳同門은 본부방침

"安保위주의 協力治安에 최선" 外事업무 탁월성보인 지휘관

제현사경찰기구（인터폴）제5차아시아지역회의 한국대표로 참가、국제사기를 비롯 국내재산의 해외도피、부정상품 근절에따른 각국경찰의 긴밀한협력등의 지론을 펴기도。
洞察力있고 평소 부하를잘 아끼기로 정평난柳동문은『앞으로 일선 경찰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배려、신뢰받는 참신한 경찰像구현에 역점을두겠다』면서『관계기관및 對民협조체제를 더욱 擴充、前進하는 江原치안을 이룩해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서울中部서장등 一線지휘관서경력으로 지난 柳同門은 본회임원（상무이사）으로 활약해오고있으며 본회 柳周馨부회장의 親兄이기도。

出入國

▲權赫重（49전문·서울프라자호텔社長）「마닐라」에서 열리는 PATA총회에참석하기 위해 지난26일 出國。귀로에 東南亞지역을 순방、판촉활동을 벌이게된다。
▲金宣洛（65化學·啓明大學校 화학과 교수）=日本학술진흥회 초청으로 韓·日과학자 교환계획에따라 京都大學과 日本國立암연구소에서 共同연구및 시찰차 지난1月초출국。귀국은 3月초순。
▲鄭政樹（70經營·東亞日報편집부記者）洪月杓（69法學）=1月13日 正午 市內신혼예식장에서 崔敦九동창회장 주례로 화촉。
▲許東華（57法·방수실업社長）=1月17日오전11시 市內 신라호텔 영빈관에서長女 결혼。
▲韓柱瑄（78貿易·효성물산 보험과）=1月19日 오후2시 梨花예식장에서 本人화촉。
▲白大雲（74電子工·한국生絲계기사업부）=2月2日1時 신혼예식장에서 本人화촉。
▲金金龍（77國文·信光女高）=2月3日오전11시 신문회관에서 본인 화촉。
▲김갑성（79法學·조선맥주영업부）=1月26日오후1시30분 타워호텔에서 모교韓相範법정대학장 주례로 본인 화촉。

移轉·開業

▲朴太成（64경영·東五요업社長）=사무실을 市內무교동35의1 조양빌딩701호로 이전。
▲李丙國（63法·자원개발연구소관리과）강서구화곡3동220~28 흥진아파트1동109호로이사。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 東國의 傳統

〈24〉

영어 영문학

宋堯仁 英語學의 최신理論을 도입 18C英小說 연구로 學界정평

金福善

宋堯仁敎授는 英文科 卒業年度로 보면 상당히 늦게 學界에 進出한 편이나 1960年代에 들어서자 東國의 英語英文學전통은 宋堯仁博士를 필두로 새로운 章을 맞이하게 된다。宋堯仁敎授는 母校에서 주로 英語學分野의 講義를 담당하면서 英語學분야에서學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탁월한 그의 語學的 才能과 예리한 분석能力은 그의 學問的 깊이와 넓이에 直結되어 있다。
渡美留學 直後에 發表한 論文인 言語敎育을 위한 그의 Research Design(語學연구 2권2호)에서 그는 言語理論과 실제수업을 연결하는 통계학적 考察을 試圖하였고、「Sibilant Sounds小考」(英語英文學24호)에서는 齒擦音을 音聲學的으로 고찰하면서 치찰음의 調聲과 음향에있어서 Eddy C-avity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英語와 韓國語의 子音체제의 연구」(東大論文集3、4合輯)、「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Gottal」(東大論文集 第5輯)、「TESOL 성격과 방향」(영어영문학27호) 등의 논문을 계속 발표함으로서 學界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더우기 宋堯仁교수는 그의「散文作品의 英譯에 대한 言語學的 考擦」(영어영문학42호) 이란 論文에서는 두개의 다른 言語의번역 문제에 있어서실제와 理論을깊이 다루고 있는데그는 英語學과 言語學에 있어서英美의 最新理論을 도입적용함으로서 약30편에 달하는 논문을發表한것만 보아도 그의 學者로서의 能力과 學究的 자세를 엿볼수 있다。
韓國文學 作品의 英譯에 있어서도 많은 業績을 남기고있다。주요 英譯 作品으로는 黃順元의「파편」외 5편을 英譯하여 그 一部는 이미 美國에서 출판된바 있고、희곡作品으로서는 李根三의「거룩한 직업」외 5편을 번역한바 있는데 이가운데 일부는海外출판을 보았고 영문수필및 칼럼만도 약3백편에 달하고 있음을 볼때 宋堯仁교수의 학문적 정열을 엿볼수 있다。母校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각종 學會活動을 통해서도 東大의 학문적 傳統을 밖으로 빛내고 있다。韓國英語英文學會、국제P·E·N클럽、한국언어학회、한국영어교육학회등의 理事職및 副會長職을 역임한바도 있다。
金福善교수는 英小說분야에 拔群의 업적을 남긴 유일한 現職同門이다。「Henry Fielding의 Humanism」(英語英文學 49號)、「Laurence Sterne의 作品世界」(東大論文集11號)「R-ichardson의 작품에 나타난悲觀 抽象化란 살아있는 것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Fielding의 Tom Jones를 통해서 기성道德과 傳統에 갇혀있는 無氣力하고 病的인 自己만의 人間을 그리지 않고、生命에 넘치는 건강한 인간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good-nature를 단순히 先天的인 觀念으로 보지않고 끊임없이 창조되어야 가능성으로 보았고、現代의 實存的 生哲學的 견지에서 인간 이해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Jane Austen의 作品世界를 ironic한 세계로 본 金敎授는 Jane Austen의 작품이 단순한 自身의 論據를 확인하고 있다。
吳國根敎授 역시 現職同門敎授로서 小說分野에 많은 業績을 남기고 있다。吳敎授는 주로 美國小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小說飜譯에 남다른 才能을 발휘한바 있다。飜譯에 있어서 吳國根敎授가 주로 관심을 기울인 作家는 E.A.Poe, O.Henry, Hemingway, Melville등과 같은 美國作家들이었고 英國의 女流作家 Emily Bronte의 Wuthering Heights를 飜譯하기도 했었다고 말함으로서 自身의 문학관을 어느정도



◇「東國人의밤」은 눈·비바람이 不順한 日氣에도 아랑곳없이 1천여동문이 雲集、宴會場을 가득메우며 再會의 기쁨을 나누었다。

友情의 손맞잡고 結束意志 다지다

구랍19日, 「東國人의밤」행사 盛況裡마쳐

1천여명 雲集…반가운 再會의 熱氣 가득

34명에게 祝賀牌…長技자랑등 열어

80年代 東國中興위한 決議文채택도

누군가가 「國籍은 바뀌어도 學緣을 끊을수 없다」고 갈파했듯이、學緣을 같이하는 東國人들의 잔치날、1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1전국 방방곡곡의 가족들이 한자리에모였다。

「마음의 故鄕」으로 찾아든 발길은 文字그대로 長蛇陣1기쁠과 괴로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모이고、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기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도 「東國人의밤」(임시총회겸 東國을 빛내준 동문축하연및 송년회)행사가 구랍19일 오후6시 市內퇴계로5가 앰버서더2층 대연회장에서 1천여명의 東國人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거룩한 三韓의 언덕위에한줄기눈부신 東國의 빛/큰光明、큰 智慧큰 힘으로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으랴/가슴마다 높이 들렸다/가슴마다 높푸른 理想 오직 의기에 찬 젊은 모습/이 땅에 새 歷史를 창조하라 겨레를 위해/인류를 위해/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1』가슴 뿌듯한 校歌제창으로 개회된 이날 행사에서、崔載九 會長은 人事말을 통해 『그동안 本會는 無形에서 有形으로、정체에서 활동으로、단절에서 연결되는 동창회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2백여 單位組織의 결속은 他大學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80년대에는 더 미덥게 뭉치고 더 뜨겁게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미더운단결과 분발다짐

母校 鄭在覺총장은 격려사에서자신이 國家로부터 受領한바있는 무궁화 훈장이 자신이아닌 東國의것이었음을 새삼 느낀다면서 『70년代의 현저한 校勢확장과 괄목할만한 成長은 東國人의 意志의 所産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同門들의 열렬한 협조를 당부했다。

◇全5部로 나눠進行

尹天泳 本會 事務局長의 司會로 진행된 이날 「東國人의 밤」행사는 임시총회、2部 東國을 빛내준 同門祝賀會、3部 送年파티、4部 長技자랑、5部 행운권 추첨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이어 70년대를 보내고 새年代를 맞는 새章의 轉換點에 당도한 東國人들의새각오를 밝히는 決議文이 柳周鏖副會長에의해 낭독되자 1천여 東國人들은 박수갈채로서 이를 채택했다。

招請人士 기념품 증정순서에는 母校 鄭在覺 총장에게 人蔘제품세트、金東益 前 總長에게 洋服地를 드림으로써 母校발전에 쏟은 功에 答禮하기도 했다。

◇취임·당선등에 祝賀牌

第二部 東國을 빛내준 同門 祝賀會에서는 就任·當選·敷章및 受賞、博士學位 取得、각종고시 합격등을 통해 東國人의 名譽를 진작시킨 同門에게 축하패를、그리고 우수 東友會등엔 공로패를 수여했다。

祝賀者를 代表해서 柳根昌(49·專門·한국토지개발공사 社長)同門은 『우리는 늘 母校의 그늘에서 成長하고 있는만큼 단결로서 東國發展에 다함께 참여하자』고 答辭에서 말했다。

◇再會의기쁨 곳곳서만발

會長團및 總長、重鎭 同門들의大型 케이크 절단과함께 개시된 送年파티는 再會의 반가움과 누적된 情談이 10여개의 園卓위에 만발、화목한 東國人 가족분위기는 피크에달해 이날의 하일라이트。비바람이 몰아치는 일기도 아랑곳없이 濟州를 비롯 京鄕각지에서 雲集한 1천여東國人이 손에 손에 우정의 盞을 맞잡아 우리는 영원한 東國人임을 再確認하기에 부산하기만했다。

◇長技자랑…現役 탤런트 特別출연도

KBS탤런트 조재성同門의 才技로 이어진 長技자랑에서는 이경훈(52·經·78년1등) 同門과 이성웅(64·演映·TBC탤런트)同門이 심사를 맡았는데 영예의 1등은 박무영(55·國·경제통신사)、2등은 朴光秀(78·경제·삼환기업)、3등은 박재호(71·商學)동문에게 각각 돌아갔다。백준기(76·연영·TBC TV탤런트)이성웅(64·연영·TBC TV탤런트)의 특별출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가열되기도。

수상기등 個人·단위東友會등에서 증한 2백여점의 푸짐한 상품을 놓고 시작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송규평(65·農)동문이 행운大賞을 낚아 70년대의 마지막 幸運兒가 되었는데 당첨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어떤 동문은 얼큰해진 술기운에 카

◇幸運상품 2백여점 고루 시상

崔會長이 마련한 幸運大賞 TV





◇여타大學동창회가 얼루도 못내는 「東國人의밤」행사 프랭카드가 무대中央에 높이 걸려있으며(사진上)、이날 會長團을 중심으로 現·前총장、중진同門이 「東國中興」대형케이크를 자르고있다(사진中)。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東國을 빛내준 同門에게 축하패를수여、격려하였다。(사진下)

새해를 맞이하는 東國人의 결의

우리 全東國人은 急變하는 內外情勢속에서도 延綿히 굳건한 民族史를 열어온 主役으로서 이제 지난 70年代를 마무리하며 대망의 80年代를 내딛는 길목에서 다시금 東國人이라는 自信과 긍지를 지니고있다。

모교 東國大學校의 信實과 慈愛의 建學理念을 받들어 안으로는 더욱 精進하고 밖으로는 民族近代化의 선봉으로서 창조적인 기여를 다짐한다。

이에 和合精神을 바탕으로 東國中興의 榮光된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五萬東國人은 다음과 같이 굳게 決意하는 바이다。

첫째、우리 全東國人은 自主·民主·自由를 향한 國家사회와 東國大學校의 발전이 우리의 愛展임을 굳게 다짐하며、東國人으로서의 能動的인 참여한다。

셋째、우리 全東國人은 東國의 無限한 저력을 바탕으로 勇猛精進、東國스포츠中興에 총력을 경주하는한편、東國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世界萬邦에 떨치기위해 「마나솔루」精神으로 도전하는 東國山岳人들의 자랑스러운 壯擧에 아낌없는 찬사로서 成功的인 登頂을 기원한다。

넷째、全東國人은 스스로 學緣을 바탕으로 先後輩間의 友誼를 돈독히 高高成長 東國人像을 定立한다。

굳게 다짐하며 다가오는 80년대의새로운 역사를 위한 時代的사명감과 그각오를 드높인다。

둘째、우리 全東國人은 東國의 찬연한 역사와 傳統을 創造的으로 계승하고、大東國으로의 發展에 能動的으로 참여한다。

서로안부묻고 밀린情談으로 時間가는줄 몰라

母校를떠나 所在는 各己 遠隔되어있어도 정신은 늘「東國」에 合一하여있으며 生活의 向方이 각각일지라도「東國」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로 1천여 東國人 가슴 가슴에 넘실거렸다。 구랍 19일「앰버서더 호텔」「그랜드볼룸」에서盛況을 이룬 「東國人의 밤」은 비약적 성장의70년代를 回顧하며80年代의 發展像을 設計하는 人士로 國氣를 參與度…「東國人의 밤」盛況

우리는 東國家族

◇崔 嚇 仁 (41惠專)
◇崔 相 奎 (70商學)
◇崔 文 奎 (72都工)
◇崔 順 奎 (79國敎)
◇白 周 欽 (63法學)
◇金 益 鍾 (66經濟)



◇崔嚇仁동문은 가장 선배이자 家長격인 崔동문을 분수령으로 하여 長男 相奎(70商學)、次男 文奎(72都工)、四女 順奎(79國敎)와 큰사위 白周欽(63法學)、둘째사위 金益鍾(66經濟) 동문으로 東國人脈을 맺고 있다。

『가족의 대부분이 한 同門이다 보니 명절때나 大小경사때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마치 小同窓會를 하는 착각이 든다』고 말을 잇는 崔同門은 『화제거리도 상대적으로 모교와 동창회소식이 대부분』이라고 일러준다。

『우선 서로 마음이 통해서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며, 특히 TV스포츠중계때 一絲不亂하게 모교팀을 응원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가정의 화목과 직결되기도 한다』고 모두 활짝 웃는다。

『왜 이렇게 모두 東國家族의 인연을 맺게 되었느냐』는 물음엔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고 一縮한다。

父子·사위등 6명이 東國人脈 全家族 모이면 同窓會 모임같아



◇崔동문 가족사진(가운데 앉아계신 분이 崔동문 부부, 왼쪽부터 막내자부 김의중 在美中이라 회갑때 찍은 사진에는 없음)

崔동문은 독실한 佛敎信徒인 모친의 佛供공덕에 感化되어 그 영향으로 佛敎精神을 건학이념으로 삼고있는 모교 前身인 혜화전문에 入學함으로써 東國과의 첫 인연이 시작된 것。

崔동문가족중에 두번째의 東國人은 큰사위인 白周欽동문으로 長女인 善奎(41세)씨의 남편。실제 崔同門가정이 東國人化하는데는 모교 교무과에서 6년여를 근무한 善奎씨의 역할이 컸는데, 스스로 東國人을 배필로 택한 것은 물론 동생인 정규氏의 남편으로 金益鍾동문을 소개하여 成事시킨점도 그것이다。

이어 相奎 文奎 順奎氏를 東國가족으로 만든데는 崔동문의 옹고집같은 東國사랑과 불교를 믿는데서 오는 자연적인 이치였다고 술회한다。

『세자녀를 東大에 入學시켰으면서도 모교봉직을 떠난 뒤라 직계장학혜택 한번 받지 못해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崔동문은 혜화전문在學時 학생회장과 졸업후 모교 역경원、도서관課長등으로 東國과는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오기도 했다。

또한 金法麟박사(모교 4대총장)를 따라 淑明女大·全北大총무과장을 역임하는등 교육행정 봉사로 거의 반평생을 보냈던 崔同門은 지금도 老益壯을 과시하며 제1、2대 統一主體國民會議대의원(1대때는 城東區지역회장)과 큰사위가 사장으로 있는 大玉縫製工業社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長男 相奎(34세)동문은 ROTC장교출신으로 봉제수출업체인 영우실업(주)경리과장을 맡고있어, 崔同門집안은 큰사위까지 합쳐 3명이 또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것도 특색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차남 文奎(30세)동문역시 ROTC장교로 예편한뒤 渡美하여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조림 공장을 직영하고 있다。

큰사위인 白周欽(41세)동문은 大韓通運에서 회사원으로 7년여를 근무한뒤、빙장인 崔同門과 합께 봉제업에 손을대어 현재 大玉縫製工業社 사장을 맡고있다。

둘째사위 金益鍾동문은 재학시부터 레스링선수로활약、몬트리올올림픽코치로 國威를 선양한바있으며, 현재 大韓體育會 理事、大韓住宅公社 과장으로있다。

원응응家族 亂不絲一 는때중계츠포스

명절이나 경사때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崔동문가족 모두의 마음은 늘 東國으로 인해 더욱 밀접되고있으며 東國발전은 곧 이들가정의 기쁨과 화제의 꽃이기도하다。

한편 崔同門의 셋째딸(명규)이 高大출신 정태하(春川高교사)씨에게、四女 順奎동문이 역시 高大출신인 안광철(안성군農協)씨에게 出嫁함으로써 사위 4명중 2명은 東大人、2명은 高大人으로 나눠졌지만, 崔동문집안의 原色은 「東國」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孫貞順(61세)여사와의 사이에 三男四女를 두어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있는 崔동문은 『14명의 손자들도 東國人이 될수있도록 모교가 더욱 발전해주었으면 한다』고 바래기도。

15년째 성동구玉水洞에 살아오고 있는 崔同門은 『지난 4代國會때 고향인 全北이리에서 出馬한 경험을살려 政治발전의 추이에따라 一線에 나서볼 계획』이라며 『이문제도 집안내 東國人들의 지지부터 받아야 할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웃는다。

2년전 崔同門의 回甲宴때는 온가족과 친구들이 두루모였는데 집안내 동국인이 많다보니 이날도 많은동문들로 새삼 東國人이 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후문。

◇崔嚇仁동문은 가장 선배이자 家長격이시며 부수령이시다。

내꿈을 키운다

金在國 동문 (주)제일엔터프라이즈 社長

「無愧我人」-어떤 경우에서도 부끄럽움이 없는 自身을 갖는다-을 自身의 生活信條로 삼는 「주식회사 제일엔터프라이즈」代表理事 金在國(64·法) 同門。

金同門이 독자적으로 事業에 손을 댄것은 불과 5년전인 74년10月、「제일소반」을 설립하여 선박용 소반기구를 제조하면서 부터다。政府의 홍보기관인 KPI (Korea Press International)에 在職중 日本·英國등 해외에서 쌓은 5년여의 識見과 부끄럼없이 살고자하는 왕성한 信念은 본격적事業家를 꿈꾸게 했다는것。

기껏 幼稚단계의 소규모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 1977년에는 「주식회사 제일 엔터프라이즈」를 設立하고 선박기기에 이르렀고, 계열회사로서 第一工營、第一金屬과합께 社勢는 번창했다。현재 城南·富川에 위치한 工場의 종업원數는 3백70명, 지난해에 海外輸出高는 2백20萬弗로서 美國과 東南亞시장이 주요 販路가 되고있다。

內需는 연간30억원정도、정밀기계 광학렌즈제작등은 國家防衛産業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 크게 보람을 느낀다고。

「附加價値의 極大化」는 第一 엔터프라이즈의 社訓이자 金同門의 경영방침이기도 하다。『부단한 기술축적과 성실경영을 통한 부가가치의 提高는 國家的으로나 會社、株主의 利益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겠느냐』고 평소의 企業경영의 所信을 強調한다。

『會社는 어느 特定人의 所有物이 아닌 全社員의 共有物이라는 認識이 중요합니다』라고 昨今에 대두되고있는 企業의 經營者로서의 立場을 밝히기도 한다。

훤칠한 키와 육중한 체구가 말해주듯 유도5단、합기도7단으로 몽쳐진 金同門의 所信 마디마디에는 金同門의 生活신조처럼 부끄러움 한점 찾을수없이 정직과 성실과 건강이 넘친다。



◇부끄럽없이 사는것이 자신의 생활신조라고 강조하는 金동문。

「부끄럼없는 삶」을 社員의 株主化로 福祉향상꾀해 生活신조로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속담처럼 『젊었을때의 고생은 一生에 더없는 밑거름이 된다』는 한마디를 후배들에게 해주고싶다고。바쁜日課중에서도 틈나는대로 골프와 등산을 즐김으로써 運動으로 다져진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57년부터 해온 音盤및 축음기수집과 스크랩도 金同門에게 빼놓을수 없는 취미가 되고있다。

50年代에 유행했던 노래들에는 꼭 길이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체험담처럼 일러주는 金同門은 부인 河秀京(35)여사와의 사이에 三男을 두었다。

樣多미취 등프골·랩·스·집수盤音

79년도 「東國人의 밤」

幸運賞品 협찬자 명단

◇個人別협찬

▲崔嚇九(동창회장) TV1세트 ▲金遵度(동창회 부회장) 핸운의열쇠걸이 2점 ▲黃明秀(〃) 꽃병(〃) ▲金聖涉(〃) 양복지 2着 ▲朴愚會(〃) 4만원 ▲柳周馨(〃) 양복지 4着 ▲安鍾烈(〃) 양주셋트 ▲柳根昌(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2만원 ▲吳重烈(한국증권대체결제사장) 커피세트 ▲金殷夏(국회의원) 시계 ▲鄭在哲(한일은행장) 카셋트라디오 ▲洪淳池(태평양화학개발사장) 1만원 ▲禹鍾暎(태평양개발사장) 1만원 ▲趙衆成(한국자동차보험중앙대리점사장) 내의 ▲洪淑子(한국여성단체협의회수석부회장) 시계 ▲崔敏福(유원건설전무이사) 1만원 ▲金東正(변호사) 3만원 ▲金東英(국회의원) 재떨이세트 ▲朴太成(동오실업전무이사) 부비웨어5세트 ▲黃慶石(선진철강 사장) 2만원 ▲李光敏(명성여자중학교교장) 1만원 ▲成正基(중전화섭 사장) ▲趙炳善(효종사사장) 문학잡지8권 ▲李相晴(한국산업은행 일반관리부장) 1만원 ▲李相直(대한상공회의소이사) 만년필세트 ▲黃龍雲(한일은행영업부장) 커피세트 ▲李泳和(서울시세종문화회관장) 책 ▲宋東均(한진용달사사장) 석유곤로 ▲李錫龍(동방생명명보협(주)상무이사) 5만원 ▲平福昌(금성시흥센타사장) 카셋트라디오 ▲韓東根(유영산업 사장) 스타킹10세트 ▲金鍾旭(삼영화학판매(주)상무) 이동식전열대 ▲林德圭(Diplomacy 사장) 시계2점 ▲李斗世(오성공업사사장) 에어포트 ▲裵鍾大(영우구락부대표) 피크닉가 ▲朴忠一(신흥인쇄 사장) 1만원 ▲徐成來(삼화전자 사장) 장식용전화 ▲姜石臺(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라디오 ▲金文煥(세진가구공예사장) 칠복관 ▲成百幸(서영산업전무이사) 탁상시계 ▲禹昌昱(동명인쇄 대표) 파카 ▲李起彬(한국지퍼 사장) 시계 ▲金完式(새마을 지도자) 오징어2축 ▲李炳玉(태평양화학상무이사) 화장품2세트 ▲金泰佑(진흥요업(주) 관리부장) 커피세트 ▲金永喜(안양슈발 대표) 도자기 ▲宋 進(사진 예술원장) 칼라촬영권5매 ▲李丙曄(교육대학원장) 金一封 ▲李載昌(불교대학원장) 양갈세트 ▲韓相範(법정대학장) 책 ▲張源宗(경상대학장) 책 ▲朱宗恒(농림대학장) 책 ▲金聖培(사법대학장) 앨범세트 ▲鄭允武(교무처장) 양주1병 ▲崔世和(학생처장) 金一封 ▲金翰周(총무처장) 金一封 ▲裵鍾根(기획실장) 보온병

◇單位別협찬

▲法五會(康泌敏) 시계 ▲51政經學部(李昌根) 에어포트 ▲經營科(趙熙榮) 시계 ▲經營會(鄭忠熙) 탁상시계 ▲自動車保險(金昌煥) 석유곤로 ▲法友會(鄭昌勳) TV 1대 ▲農漁村開發公社(李周炯) 소세지 ▲國會(金殷夏) 티스푼 ▲協成女商(尹東燮) 조미료세트 ▲東英會(朴永基) 화장비누3세트 ▲鐵道廳(金甲鍾) 시계 ▲東松會(金正雄) 벽시계 ▲61年經濟科(閔瑛植) 에어포트 ▲61年經濟科(申夬浩) 시계 ▲東進會(朴斗世) 61年政治科(李斗世) 에어포트 ▲大韓通運(李鍾勳) 양말2세트 ▲天安(權蓮玉) 시계 ▲城南(徐正植) 화장품 ▲서울市廳(兪永植) 커피포트 ▲物理科(趙汀植) 양장지 ▲住宅銀行(金在基) 수첩2백개 ▲東青會(崔宗龜) 벽시계 ▲東女會(洪淑子) 탁상시계 ▲敎農東友會(權五甲) 식기 ▲農經科(權五甲) 〃 ▲韓國電力(徐正五) 펜꽂이、연도기 ▲農協(許良道) 비누3세트 ▲68農經科(姜乘國) 트레이닝복 2벌 ▲仁川(孟殷在) 시계 ▲大韓保證保險(조기호) 金一封 ▲在職同門會(李丙曄) 〈接受順、( )안은 회장 또는 간사명〉

각종會費납부자 명단

◇年會費납부자

▲이영기(72상) ‖3、000원 ▲權錫範(60英) ‖〃 ▲池泰河(73營) ‖〃 ▲전찬우(58政) ‖〃 ▲金學奎(61經) ‖〃 ▲韓東根(58經) ‖〃 ▲趙重昊(〃) ‖〃 ▲金三龍(〃) ‖〃 ▲崔光錫(58經) ‖〃 ▲金泰圭(62政) ‖〃 ▲權景燮(64國) ‖〃 ▲조만행(74행원) ‖〃 ▲이장희(65농) ‖〃 ▲박갑순(60國) ‖〃 ▲윤인호(〃) ‖〃 ▲이 준(69행원) ‖〃 ▲우기복(〃) ‖〃 ▲구본흥(72農) ‖〃 ▲방주석(〃) ‖〃 ▲전용하(〃) ‖〃 ▲이성래(〃) ‖〃 ▲李根陽(52政) ‖〃 ▲김형덕(73경) ‖〃 ▲吳哲求(53政) ‖〃 ▲崔春(78法) ‖〃 ▲韓養根(53法) ‖〃 ▲南鍾玉(72商) ‖5、000원 ▲朴정도(77경행) ‖〃 ▲李富性(67經) ‖〃 ▲정대진(63法) ‖20、000원 ▲송규평(65農) ‖10、000원 ▲최윤규(55政) ‖〃

◇年會費단체납부

□부산지부 (회장 朴東昊·20명) ‖60、000원

□제주동우회 (회장 玄平孝·26명) ‖78、000원

□대경상고 (000外 8명) ‖2、000원 ▲敎農東友會(權五甲) 식기 ▲農經科(權五甲) 〃 ▲韓國電力(徐正五) 펜꽂이、연도기 ▲農協(許良道) 비누3세트 ▲68農經科(姜乘國) 트

◇年會費납부자

▲이영기(72상) ‖3、000원 ▲權錫範(60英) ‖〃 ▲池泰河(73營) ‖〃 ▲전찬우(58政) ‖〃 ▲金學奎(61經) ‖〃 ▲韓東根(58經) ‖〃 ▲趙重昊(〃) ‖〃 ▲金三龍(〃) ‖〃 ▲崔光錫(58經) ‖〃 ▲金泰圭(62政) ‖〃 ▲權景燮(64國) ‖〃 ▲조만행(74행원) ‖〃 ▲이장희(65농) ‖〃 ▲박갑순(60國) ‖〃 ▲윤인호(〃) ‖〃 ▲이 준(69행원) ‖〃 ▲우기복(〃) ‖〃 ▲구본흥(72農) ‖〃 ▲방주석(〃) ‖〃 ▲전용하(〃) ‖〃 ▲이성래(〃) ‖〃 ▲李根陽(52政) ‖〃 ▲김형덕(73경) ‖〃 ▲吳哲求(53政) ‖〃 ▲崔春(78法) ‖〃 ▲韓養根(53法) ‖〃 ▲南鍾玉(72商) ‖5、000원 ▲朴정도(77경행) ‖〃 ▲李富性(67經) ‖〃 ▲정대진(63法) ‖20、000원 ▲송규평(65農) ‖10、000원 ▲최윤규(55政) ‖〃

◇理事會費납부자

▲金在國(64法) ‖10、000원 ▲宋昔煥(68統) ‖20、000원 ▲李濟坤(68經) ‖〃 ▲鄭巖永(58經) ‖50、000원 ▲成白幸(66營) ‖20、000원 ▲楊秀成(65營) ‖〃 ▲金丙學(68法) ‖〃 ▲梁承祐(61法) ‖〃 ▲崔甲東(62政) ‖40、000원 ▲禹鍾曉(49專門) ‖20、000원 ▲李周炯(65經) ‖〃 ▲兪賢穆(49專門) ‖〃 ▲黃龍浩(63商) ‖40、000원 ▲許順五(69行碩) ‖40、000원

◇광고료 납부자

▲李錫龍(36호) ‖10、000원 ▲金文煥(40호) ‖20、000원 ▲金在國(44호) ‖10、000원 ▲安鍾烈(43호) ‖〃 ▲梁世煥(〃) ‖〃 ▲洪凰來(〃) ‖〃 ▲江陵지부(鄭義昌·〃) ‖30、000원 ▲經營學科(趙熙榮·〃) ‖〃 ▲大韓通運(李鍾勳·〃) ‖〃

綜合大學院건물 年內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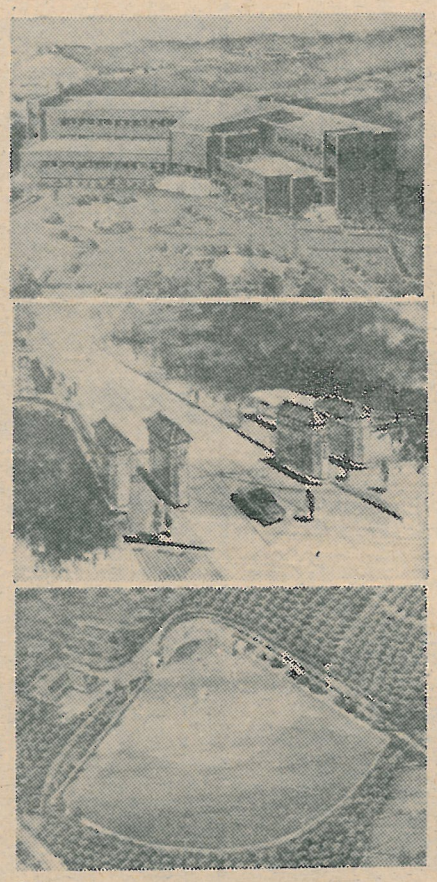
새正門 傳統美살려 建築
宿願의 야구專用球場도 실현

새해들어 모교는 校勢확장의 일환으로 綜合大學院建物(日本學研究所 결용)、正門、野球專用球場등 세 설계도를 完成、年內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구랍29일 총무처(處長‖金翰周)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학원 건물은 惠化館(구 교양학부건물) 앞 테니스장자리에、正門은 현재 위치에서 장충단공원쪽으로 1백40m 前方위치에 새로 건립되어 母校캠퍼스의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또 야구부 전용구장은 母校 實習農場(경기도 일산소재)에 4천평 規模로 세워져 野球部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된다。

綜合大學院 …… 천7백여평、지상2층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造) 現 (연건평1 테니스코트뒤 경사진 雜林地에 자리잡아 校外에서는 4층건물로、校內에서는 2층건물로 보이게되며、테니스場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정원식으로 조경하게된다。이 建物에는 대종합세미나실과 4개대학원의 강의실、행정사무실、日本學研究所등이 수용된다。

正 門 …… 正門은 현대식에 古典美를 가미、東國의 傳統을 상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금년 5월까지 우선 수위실과 보도및 도로 조경사업을 마칠 예정이며 교문도 금년중 착공하게된다。校門이 남산 산책로와의 분기점 부근에 세워져 완공되면 장충수영장이며 국내의 우수한 연습구장의 장점들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참조、「常勝東國」의 野球部 訓練에 만전을 기하게된다。특히 이 야구장은 서울운동장 야구장과 日照등 제반조건이 비슷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專用球場 …… 은 野球專用球場으로 4천여평으로 國內大學球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금년에 착공될 세건물의 조감도 (위로부터 종합대학원, 正門, 야구전용구장)

새로정한 고유이름 建物마다 다시새겨

총무처(처장‖金翰周박사)에서 방학기간중인 12월24일 에 母校建物명칭 作成委員會에서 확정한바있는 각건물의 고유이름을 건물에 새겼다。

모교 裵吉基교수(佛敎大學 美術學科)가 글씨를 썼으며 동국전통의 맥락을 찾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佛敎新書 25권째刊行
매년10권씩 10년事業으로

佛敎문헌상의 古典은 물론 역사 哲學 文學등 불교 諸分野의 대중화를 위해 「佛典刊行委員會」(위원장‖鄭在覺총장)에서 간행하는 「現代佛敎新書」가 지난해12월 「現代佛敎隨筆選」이 출간돼 25권째를 기록하였다。

이 「新書」 시리즈물은 매년 10권발간으로 10년간 백권 발간을 목표로하고있다。지난해 5월이후 추가발간된 同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권 「四溟大師 壬亂記」(배재) 孫七模(체육고) 金貞植(동대문상) 군등 9명을 보강、전력을 정비 했다。

농구부는 흉익고의 정상급센터 郭長錫등 4명을、레스링부 역시 김수환등4명、복싱부는 프로선수인 黃忠載(2년편입)와 김수영등 2명을 새로 선발、과거 어느때 보다도 스카웃에 만전을 기해 올 동국스포츠를 기대해볼만하다。

(申維翰編·安啓賢譯) ▲20권 「科學과 佛敎」(金鎔貞著) ▲21권 「佛敎에의 招待」(檀奇종編著) ▲22권 「空의 世界」(미山雄一著·李箕永譯) ▲23권 「印度 그 와文化」(徐景洙著) ▲24권 「智慧의完成一」(鄭炳朝著) ▲25권一現代佛敎 隨筆選」(宋赫編著)

김태수君 合格
제15회 技術考試

구랍14일 발표된 제15회 技術高等考試에 모교의 金泰洙(林學科4년)군이 최종 합격했다。

孫京山 前이사장
향년62세로 入寂

孫京山 母校前理事長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구랍25일 서울 寂照庵에서 입적했다。향년 62세。

京山스님은 1917년 咸北 北靑에서 출생、금강산 유점사에서 得道한 후 (37년) 조계종총무원장 (61년) 母校理事長 (62년) 등을 역임했고 특히 불교정화운동으로 종단발전에 기여했다。

大學人事

▲李昌億 체육부장 副參與로 昇進 ▲朴尙均 補사서과장(이상 79년12월1일字) ▲羅彦杓 兇지도과장 補총무과장 ▲申昌俊 兇총무과장 補교무과장 ▲朴在慾 兇역경원 업무부장 補지도과장 ▲辛澤祥 兇교무과장 補역경원 업무부장 ▲朴東珠 兇사무주임 補경주대사무과장 ▲朴秀根 兇경주대사무과장補출판부장 (이상 12월12일字)。

入試경쟁 더욱 熾烈
평균6대1 慶州大 이미 끝나

1980년도 모교 신입생선발고사가 후기인 서울本校는 2월5~6일양일간에걸쳐 실시되며、전기모집에 한 경주대학은 지난 21일 7백40명의 합격자를발표、새東國人을 이미확정했다。

이미 전형이끝난 경주대학은 작년에이어 금년에도 4천3백49명이 지원、평균 5·89대1의 높은 경쟁율을 나타냈는데、최고경쟁을 보인 학과는 13·3대1(정원40명)의 신설된 환경조경학과였으며 전체수석은한의예과를 지원한 文章奕군(예시성적 302점·부산동성고)이 차지했다。

한편 서울본교의경우 오는2월2일까지 원서를 접수、6일 필답고사、7일면접및 실기를거쳐 14일1천7백60명의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본교도 경주대학 지원추세로 미루어 평균4대1정도의 지원율을 예상하는등 東國을열망하는 경쟁율이 치열할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본교와 경주대의총 입학정원은2천5백명이다。

우수選手 스카웃 30명
野球등 5個종목 걸쳐

모교는 금년 스포츠 시즌에 대비、1급 선수들을 대거 스카웃、東國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게되었다。

이번에 스카웃한 선수들을 보면 야구부의경우、尙文高 정상급 投手 金泰根 경남상고 左腕투수 李文翰 忠載 光州商高 姜政男、포수 崔仁洙등 모두 12명을 뽑았다。

축구부의 경우도 許在福 (배재) 孫七模 (체육고) 金貞植 (동대문상) 군등 대거 어느때 보다도 스카웃에 만전을 기해 올 동국스포츠를 기대해볼만하다。

◇신년隨想◇

뜨겁고 진하게 민족·나라、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겠다



金洋一

몇년전부터 들어온 「대망의 80년」 그것이 정치적인 목표로 쓰였든 경제적인목적으로 사용되었든간에 80년대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기 전까지는 마치 나와 무관한 듯이 생각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10년내외에 외국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그 면목이 전혀 새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인간이 갈수록 본래의 인간성을 외면한채 메마르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허전함을 느낀다。

풍요로운 물질문명과 오염된 사회의 공해속에서 모처럼 자기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한가로움만은 결코 아닐것이며 한번쯤 자신과 사회도덕에 대해서 깊은애정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갑자기 화폐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자 지금까지 우리의 고유한 옛 전통적 고정관념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모두가 안정과 행복을 누리자면 각자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냉정한 省察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이 유독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세계가 마치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듯 하니 더욱 어려워만 가는 세상이다。

아직은 그래도 옛 관습과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새로운사태에 어느정도의 기둥이되어 버틸대로 버티고 있는 셈이지만 만약 이런 무질서가 무한정 지속된다면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음에 틀림없다。

가까운 우리생활주변에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요즈음 집들을 많이 짓고있다。외양만 그럴싸 하게 장식하고 실제 내부살림의 실용도는 형편없게 날림공사를 하고있다。

그래서 손해보고 골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밖의 화려함에서 속으로는 얼마나 서글픈 사연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댓가가 크고 작음에 관심을 두지않는 일이다。

「아무리 조그마한 댓가를 받았을 지라도 내가 정성을 기울인 것이었다면, 건강한 삶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사랑한것이다」라고한 누군가의 말을 생각해본다。현재는 미래의 선취이다。

미래는 결코 독립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가 곧 미래도 아니다。

단지 현재에서 선취될 뿐이다。현재의 나는 어떤가。아니 우리 모두는 어떤가。

지금의 나, 우리는 반성의 대상이 될 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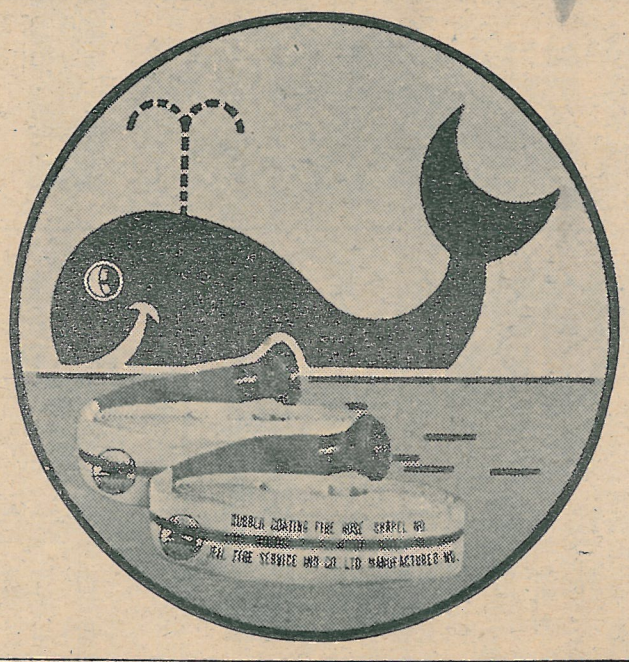
아마 먼 훗날에나 회상하게될까。이제 80년대는 술한 설레임을 조용하게 포용한채 정말 우리 곁에 다가왔다。80년대는 동포애로 온 누리가 사랑이 가득한 눈부신 민족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쾌적한 환경과 민족의 맥박이 살아나는 전통문화에 근거를 둔 민족정서의 고양및 세계 도처에 우리의 슬기를 뿌리는 뿌리깊은 민족으로 계속 뻗는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뜨겁고 진하게 민족, 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겠다。

어느 사이 80년도는 알지못할 향기로 우리앞에 피어있다。

<63政外·한국편집기자회 사무국장>

謹賀新年



주식회사 제일엔터프라이즈

代表理事 金在國 동문

서울特別市城東區馬場洞520—18
제일앤터프라이즈빌딩
電話 (252)2114~5番
(255)0101~2番